

창작뮤지컬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

단원
김홍도와
오주석이
만나다



일 시 : 2015. 12. 18 (금) ~ 19 (토) 오후 4시, 7시

장 소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티켓문의 : 031) 245-4587 가격 15,000원

인터파크 : 1544-1555

작/연출 : 김성열 작곡 : 정유진 영상 : 민병관 안무 : 김정환

주최 : 극단 성 www.suwoncastle.co.kr

OSBS A&T 뷰티스쿨

수원남문캠퍼스/수원역캠퍼스/천안캠퍼스
T. 031)242-6200



www.suwoncastle.co.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211 3층
대표전화 031-245-4587

_SYNOPSIS

〈프롤로그〉

강가에 비가 내린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진다. 조각배 안에서 어딘가를 응시하는 김홍도. 절벽 위에서 한 없이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다.

〈단원 김홍도〉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은 김홍도. 왕이 쇠락하여 슬픔이 크다.

〈포의풍류도〉

고희잔치에서 사대부의 '그림놀이'가 펼쳐진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을 가지고 당도한 김홍도. 그를 무시하는 벗들...

〈송하맹호도〉

소나무 아래 사나운 호랑이 그림. 두 사람의 '합작품' 이다. 위쪽 소나무는 강세황이, 아래쪽 호랑이는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져왔다. 그러나 오주석은...

〈풍속화〉

우리에게 친숙한 단원의 풍속화첩은 24점. 작품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김홍도의 선은 음악적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끊어진다.

〈사인회호〉

강희안의 그림 그대로 작업하는 모습이다. 들이닥친 노론이 시끄럽다. 그림에 대한 갈등, 고뇌하는 김홍도...

〈소림명월도〉

아들 연록이 답답한 마음에 도화서별제대감 이인문을 찾아온다. 한 나라의 그림은 한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해야 비로소 발전한다는 주장을 한다. 아버님과 당당히 경쟁하시라고.....

〈마상청앵도〉

벗들이 마련한 회갑잔치에서 정조가 하사한 몽당 먹으로 먹을 갈고 붓을 드는 김홍도. 나무에 꾀꼬리가 날아든다.

〈추성부도〉

차가운 달빛 속, 거칠고 황량한 가을 나뭇가지에 차고 매서운 바람이 쉼 없이 불어온다. 단원이 쓰러져가며 가을을 노래한다. '추성부도' 가 마지막 작품...

〈주상관매도〉

빈 강에 잔물결이인다. 가랑비가 내린다. 산 절벽에 핀 매화를 바라보는 김홍도에게 말을 거는 사내. "드디어 만나 뵈는군요. 살아 계셨군요." 빗방울이 거세진다. 배가 출렁인다.

_연출의 글



[연 출]
김 성 열

10년만에 편지를 씁니다.
미욱한 인간인지라 이제서야 우체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냥 보냅니다. 주소도 없이. 우체통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터질듯 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무어라 입을 열어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주석 당신의 에너지가 음악을 창조하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군요.
눈물바람 흘러며 지난 연습기간을 보낸 배우들과 만나세요.
한말씀도 하시고요.
저한테는 감추지 말고 다 말씀하시지요. 듣기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2015년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기다려, 기다리자구. 고도가 올 거야."

"가, 가지. 여길 떠나자니까."

"그럴까."

"깜박 잊었군. 할일이 조금 있어."

"그럼 천천히 출발해. 나 먼저 갈게."

그렇게 떠났다. 고도를 기다리며.

고향 水原에서 갑자기 서울로 이사했고 지금은 마음의 여백을 찾아 비어있다는 그곳 하늘로 가버렸다. 여백의 마음을 찾아서 말이다.

미술사학자 오주석. 한국전통 회화사에서 단원 김홍도와 이인문 등의 화력과 회화사적 업적을 부각시키고 사료를 발굴 해내는 등 전통 회화의 대중화에 정열을 불태우던 그가 지난 2월5일 오십도 안 되어 우리 곁을 훌쩍, 꿈결같은 이상향으로 가버린 것일까...

『예술작품에는 위대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 위대한 작품이 훌륭한 박물관에서 감상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사랑스러운 작품은 나만의 서재에 걸어두고는 가까이 하며 바라보고 싶은 그림이다. 만약 하늘이 꿈속에서나마 소원하는 옛 그림 한 점을 가질 수 있는 복을 준다고 하면 나는 김홍도의 「주상관매도」를 고르고 싶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옛 음악의 가락까지도』 기억합니다, 그 말을.

지금 단원 김홍도의 그림 「주상관매도」가 옆에 있지요, 그림 속의 배에 올라 배를 띄우고 가는 대로 놓아두니 물 아래가 하늘이요, 하늘 위가 물이었지요. 꽃이, 꽃들이 보이지요. 안개 속에 그득하지요. 즐비하게 늘어선 조화가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시작을 알리는 박소리가 그치자 모든 악사들이 웅장한 첫 음을 울리는 것처럼 대뜸 펼쳐진 황홀한 무릉도원의 전경이 클로즈업되어오고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시죠.

아, 제가 통소를 불어드리리라. 실례가 되진 않겠지요.

너무나 닮은 아들을 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넌 기억 못할거다. 얼마나 부끄러운 날들을 보냈는지. 허구한 날 음악과 역사, 연극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던 그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터벅터벅 새벽 미명 속에서 정조대왕이 만든 저수지로 걸어 들어가던 두 청년의 모습. 실존의 문제였을까요. 치열했나요, 우린. 물에 흠뻑 젖은 채 아파트 베란다에 밧줄을 매고 기어 올라가던 그 시절, 그리고 지금 난 여기 살아있군요.

화선지를 어지럽히듯 진한 먹물을 붓에 듬뿍 먹여 더 굵고 더 빠른 선으로 호방하게 쳐보려고, 꼭 눌러 획 잡아채고 날렵하게 뻗쳐내고, 또 느닷없이 벼락같이 먹물을 찍어내서는 이리적이고 저리 뿔아내듯 살아왔건만 마른 붓질이 쓸고 지나간 흔적에 지나지 않는 씩씩함과 고독이 밀려오는군요. 문장이 세상을 놀라게 한들 다만 누가 될 뿐이요. 부귀가 하늘에 닿아도 역시 그저 수고로울 뿐이라던 단원 김홍도의詩가 허망한 바람을 타고 귀에 맴도네요.

난, 배우야. 배우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당신에게 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대사를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일이 고고, 내일이 가고, 또 내일이 와서 또 지나가고 시간은 하루하루를 한발 한발 거닐면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도한다. 어제라는 날들은 모두 우매한 인간에게 터끌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햇불처럼 밝혀준다.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이여! 인생이란 길어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잠시 동안 무대위에서 흥이나서 덩실거리지만 얼마 안 가서 잊혀지는 처량한 배우일 뿐이다.』

당신의 죽음은 미완성입니다.

오호라! 하늘이 이 세상을 편안케 하고 싶지 않으셨는가! 그를 빼앗아감이 어찌 이다지도 빠른가?

하늘은 이미 그에게 재주와 인간적인 미덕을 주지 않으셨던가.

水原은 참신한 인재를 잃었소이다.

고향은 목말라 하고 있지요. 당신의 미소와 목소리를.

2005년

_CAST



[단원 김홍도]
이 훈



[이인문]
박진성



[늙은 기생]
박혜선



[벗]
김진영



[아들]
김명희

_CAST



[노론]
백승철



[이덕무]
방선혁



[박지원]
김진혁



[백동수]
이대재



[화원]
김준승

_CAST



[춤]
전승현



[춤]
김형진



[춤]
채종현



[춤]
김봄



[춤]
하경한

_STAFF



[작 곡]
정유진



[안 무]
김정환



[영상감독]
민병관



[조명감독]
김민수



[무 대]
이선주



[무대미술]
정현민



[의 상]
안해은

MUSIC

조하명호도

작: 김성연

$$\frac{p}{7} = 26\pi \text{인}$$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line of the song. The notation is on a single staff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b and Eb). The time signature is 12/8. The melody is written in a simple, folk-like styl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staff: "고향지 - - 다보여 - - 수련 가지가 - - ? L". Above the staff, there are handwritten notes indicating the key signature: "Cm" (C minor) and "Db/C" (D-flat major / C minor).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ong "The Sound of Silence" by Simon & Garfunkel. The notation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b) and a common time signature (C). The melody is written in a simple, accessible style, with notes and rests corresponding to the lyrics below.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소리쳐서 - 하늘에 떠 있다 - 어디 서부터 출발한가 지인". The notation includes a double bar line and a repeat sign at the end of the melody.

E^bSus Fm G^b/F A^b/F B^b D^bAⁿ

b^bb p. 2t

Fm 2t/1 cr

G^b/F 2t/1 cr

A^b/F 2t/1 cr

B^b 2t/1 cr

D^bAⁿ 2t/1 cr

E^b $A^{b_{sus}}$ A^b $F\sharp A$ B^b
 $B^b B^b$

뭉뚱하게 주고, 들리고! 뒤틀리고, 틀려주고
 다시 다음줄기다
 잔가지가 험악했구나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five-line staff. The notation include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Above the staff, there are labels: G/B , C_{sus} , and C . Below the staff, there are handwritten notes in Russian: $(10/20)$ $м$ $г$ $2\frac{1}{2}$ 244 $н$ $-$ $-$ $-$. The notation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nd a large 'X' mark.

공하맹호도

작: 김영철

공: 정유전

Fm Eb/F Db/F Fm Eb/F

바람이 - 불 다 반 가네 셴을 한다 툭 툭 - 꺾이거진다! 자지들이여!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five-line staff.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s (quarter, eighth, and sixteenth notes), rests, and accidentals (flats). Above the staff, there are handwritten labels: Db , Cm , Db , $Csus$, and C . Below the staff, there is handwritten Korean text: 갈라지 고 - 터져 가 - 가지들 사 이 큰 바깥이 지나간 다 - -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taff with notes and accidentals. Above the staff are labels: $b\flat$, b , $E\flat_{sus}$, $E\flat$, C/E , Fm . Below the staff is Korean text:
 바깥을 22해야 된단 (under $b\flat$)
 바깥아 (under b)
 붙어 가 (under $E\flat_{sus}$)
 붙때까지 (under $E\flat$)
 가라 (under C/E)
 어느새 (under Fm)
 - - (at the end)

[illegible]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five-line staff. The notation includes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b and Eb) at the beginning, followed by a single vertical bar line, and then a double bar line. Above the staff, the letter "Ab" is written twice. Below the staff, the letter "a" is written.

노소동락, 50대 속의 김홍도

전 경기도박물관장 이원복

수원 출신 미술사학자 오주석(1956~2005)은 외우(畏友)로 평소 아끼고 존경한 후배이자 도반이며 절친이었다. 그는 50을 넘기지 못하고 타계해 내달 5일이면 벌써 9주기가 된다. 200자 원고지 1천매가 넘는 석사논문인 '이인문필 <강산무진도>의 연구'는 두 학술지에 나뉘어 실렸고 사후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이와 함께 그가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 화가'로 자리매김한 '조선의 그림 신선(畵仙)' 김홍도에 대한 저술은 한국회화사 연구에 큰 획을 그은 성과로 평가된다. 단원이 태어난 곳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없지 않으나 그가 어린시절 경기도 안산에서 일정기간 머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단원의 스승인 표암 강세황(1713~1791)의 기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여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표암 탄신 300주년을 맞아 개최한 '표암 강세황-시대를 앞서간 예술혼'(2013.6.25~8.25)을 통해 새로운 그림 한 폭이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미술부 권혜은 학예연구사에 의해 <균와아집도(筠窩雅集圖)>로 명명된 작품이다. 균와는 '대나무 움집'이나 '대나무가 있는 별장'의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모임에 참가한 여덟 사람 중 한 사람인 신광익(1746~?)의 호이며 모임이 열린 장소이기도 하다. 광익은 신을 벗고 안석에 기댄 채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단원보다 한 살 아래이며 이들보다 더 어린 인물이 꽃가꾸기에 미친 사람이자 꽃 그림으로 유명한 백화보를 그린 김덕형이다. 8명의 등장인물 중 50대가 셋, 10대가 3명이니 노소동락이 아닐 수 없다.

18세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의 한 사람으로 남종문인화의 토착화에 기여한 풍채 좋은 57세의 심사정, 훗날 예원의 총수로 당대 최고의 감식안인 책상에 기대어 거문고를 타는 뽕족한 턱의 삼각형 얼굴로 벼슬길에 나가기 전인 51세 강세황, 취화사로 일화를 많이 남긴 치건을 쓰고 바둑을 두는 52세의 최북, 바둑을 관전하는 온화한 인상은 55세의 허필, 한 폭 그림에 김홍도 등 조선왕조의 '우리 문화의 황금기인 진경시대'인 18세기 내로라 하는 화가들이 여럿이 등장한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남긴 허필의 발문에 의해 합작품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그들의 화풍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강세황이 구도를 잡았고 인물은 김홍도가, 소나무와 바위는 심사정이 그렸으며 채색은 최북이 담당하는 등 기념비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이 그림은 일본에 유출된 것이었으나 마치 전시회를 앞두고 이를 위해 고향을 찾은 양 귀환한 것이다. 제발의 간기로 1763년임을 알 수 있으니 특히 이 그림 속엔 통소를 부는 만 18세 김홍도는 앳된 모습의 준수한 청년이다.

김홍도는 문인화가 윤두서와 강세황처럼 자화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 점은 '조선의 그림 성인(畵聖)' 정선도 마찬가지다. 일제강점기 때 알려진 수장가로 서화에 이름을 얻은 송은이병직 소장이었던 <초상>은 현재 복벽에 있으나 단원의 <자화상>인양 소개되기도 했다.

단원에 대한 서술을 문헌에서 살피면 스승 표암은 '눈매가 맑고 용모가 빼어나 익힌 음식을 먹는 세속인 같지 않고 신선 같은 기운을 지님'을, 역관의 아들로 여향문인인 홍신유(1722~?)는 '그 생김이 빼어나게 맑으며 흰칠하니 키가 커 세속인이 아님'을, 단원의 외아들 김양기의 친구이며 추사 김정희의 제자인 조희룡(1789~1866)은 '아름다운 풍채에 도량이 크고 넓어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신선과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싱클레어 안의 데미안처럼, 죽었으되 기억해 주는이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것이니, 나를 기억해 주는 이 누구인가. 누구의 기억 속에 깃들까.

한 미술사학자를 그리며

전 논설위원 송충식

"...우리의 희귀한 보석을 발굴하고 알리며 나아가는 것 또한 진보 중의 진보다. 지난 5일 타계한 미술사학자 오주석 선생의 기사는 설특집에 밀려 부음란의 한 귀퉁이를 차지했다. 멀리 앙드레 말로까지 갈 것도 없다. ...한 사람의 문화인, 한 사람의 미술사학자의 힘이 포항제철에 맞서고 민주화에 맞서는 문화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소설가 함정임씨가 얼마전 경향신문 옴부즈만 칼럼에 기고한 글이다.

소홀히 다뤄진 '오주석 부음'

이 글을 접하고 만감이 교차했다. 그 미술사학자와 학창시절을 같이한 친구로서, 비록 자기일에 매달려 거의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서야 그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학문적 인생을 꽃피울 49세의 나이에 백혈병과 싸우다 먼저 간 '인간 오주석'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며 문화와 예술, 인간을 사랑했던 그의 혼(魂)을 알려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학창시절 그는 음대진학을 꿈꿨을 정도로 클래식에 조예가 깊었으며, 연극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시인이 되겠다며 두툼한 공책을 술기운으로 메우기도 했다. 하지만 학문하는 자세도 진지했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동양사학자 고 민두기 교수도 누구보다 그를 신뢰하는 듯했다. 그는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을 찾아가 한문과 중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졸라대기도 했다.

고인이 대학을 다니던 시적은 최루탄으로 얼룩지던 유신말기였다. 그의 꿈과 열정을 불태우기엔 너무도 주위 상황이 열악했다. 리버럴리스트 기질이 다분한 그였지만 날만 새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불확실한 현실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래도 그만은 대학원에 진학해 교수가 될 줄 알았건만, 결국 자신의 꿈을 찾아 '마이웨이'를 갔다. 그가 한국 고미술로 방향을 바꾼것은 의외였다. 당시만 해도 정치, 이념, 경제의 잣대로 본 역사만 있을 뿐, 문화사, 풍속사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회고했다. "젊은 날은 두서없이 허망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옛그림 공부라는 텃밭에 뿌려진 퇴비로서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고인은 단원 김홍도 등 18세기 화가들의 자료 발굴과 독창적 해석을 통해 조선 후기 회화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술사의 문외한으로서 그의 업적을 심층적으로 언급할 입장은 아니나, 그가 얼마나 가치있는 사람이었는지는 인터넷에 '오주석'석자만 입력해도 금세 알 수 있다.

그는 왕성한 연구와 저작, 강연 활동을 통해 박물관에 처박힌 한국미술을 대중들의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아카데미즘과 대중성의 절묘한 조화를 이뤄낸 그의 쉽고도 품격있는 언어는 역사학도의 통찰력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함께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고미술 연구 · 대중화 큰 공로

"그림을 아는 사람은 설명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 즐기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기 그려지는 대상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그는 예술을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며, '옛사람의 눈길'로 옛그림을 감상할 것을 강조했다.

부하뇌동하지 않고 자기의 세계를 추구하는 우직함, 과장과 허식을 싫어하는 깔끔함, 남을 포용하고 여인 낙락(輿人樂樂)하는 여유로움..., '한국미의 특강'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등 그의 저작에는 이러한 그의 인간적 향기와 선비기질이 그대로 배어난다. 학창시절 음악 예술 얘기만 나오면 행복한 표정을 지었던 그의 모습이 선하다.

오주석이라는 '희귀한 보석'을 공부하다 보니, 혼이 없는 문화와 예술은 껌데기에 불과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새삼 떠올랐다.

오주석(吳柱錫)을 다시 읽는 즐거움

전 논설위원 이해덕

경주박물관장을 지낸 일향(一鄕) 강우방(姜友邦, 70)은 우리나라 미술사학계에서 거침없는 독설로 유명하다. 그는 '오유(傲游)'론에 근거한 특유의 직설화법을 즐겨 구사한다. 그가 말하는 '오유'란 '분명 오만한테 전혀 밉게 보이지 않는 태도'로 "헤프게 덕담이나 하고 가식적 겸손보다는 오유를 택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상대를 에두르지 않고 실명(實名)으로 비판한다. 그러한 대상 가운데 한 명이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이다.

일향은 유홍준이 책에서 소개한 작품들의 절반이 위작(僞作)이라고 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람이 저서에 위작을 그렇게 많이 소개한 것을 보니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며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유적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하는데, 본질은 없고 쓸데없는 것만 말해주니 유홍준은 미술사가 아닌 답사가"라고 했다.

그런 그가 예외적으로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오주석(吳株錫)이다. "오주석은 그림도 알고 한문도 알고 역사도 안 몇 안 되는 미숙사학자였다"는 게 그의 말이다. 사람들은 그를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기억한다. 미술사학계 최고의 실력자로 꼽히면서도 변변한 직함 없이 살았던 이유에서다.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과 호암미술관 주최로 '김홍도 특별전'이 열렸을 때 큐레이터는 오주석이었다. 전시를 마치고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한 잔 걸친 그는 "내가 김홍도를 너무 이용해 먹는 것 같다"며 소리 내어 울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1956년 수원에서 태어난 오주석은 서울대 동양사학과와 동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를 나와 코리아헤럴드 문화부기자, 그리고 호암미술관과 간송미술관 등을 거쳐 1987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됐다.

여기까지의 인생역정은 비교적 순탄해 보인다. 그러나 중앙박물관 졸속 철거 정책이 확정된 직후인 1994년 1월, 오주석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표를 내고, 이후 '미술사학계의 야인'으로 남는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한학(漢學)과 동양 고전은 물론, 주역의 대가인 김석진(金碩鎭)에게 수년간 사사했다. 사람들은 그의 학문적 성취를 두고 "치열한 공부 덕"이라고 말했다. 그가 다른 미술사 학자들과의 사이에서 돋보이는 까닭은 단지 '미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철학적, 사상적, 문학적 배경까지도 두루 꿰고 있기 때문이다.

시 한 수의 출처를 찾기 위해 원전(原典)을 뒤졌고, 작가의 성장 배경을 알기 위해 족보를 찾았다. 폭우 흔적이 역력한 겸재(謙齋)의 '인왕제색도'가 언제 그려졌는지 알아보려고 송정원일기의 날씨 기록을 살폈을 정도로 철저했다. 이를 두고 학계는 "엄정한 감식안(鑑識眼)과 작가에 대한 전기(傳記)적 고증으로 회화사의 지평을 넓혔다"고 했다. 이런 평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문장이 주는 고아(古雅)한 맛이 실제 행동이나 어투에서도 고스란히 배어나왔다고 지인들은 기억한다. 그가 쓴 책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에서도 밝혔듯 '무릇 그림이란 마음 가는 바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그 역시 마음 가는 대로 글을 썼고, 글 가는대로 따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또 기회 닿을 때마다 주역 공부의 즐거움에 대해, 그리고 거문고의 즐거움, 옛 선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단호해야 하는 순간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세사(世事)의 바르지 못한 것, 특히 우리 옛 미술을 욕되게 하는 비평과 해석에 대해서는 더욱더 단호했다. 생전에 그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마음을 가진 존재(人者天地之心也)"라는 말을 즐겨 썼다. 비록 지금 세상은 하늘과 땅의 마음을 잇는 채 약삭빠른 천박함이 판을 치지만 '좋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가 남긴 글과 마음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을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유산이 됐다.

2005년 만 29세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오주석을 추모하는 모임이 고향인 수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히 '오주석 열풍'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회화, 태극도설 철학과 연계시켜 해석

김성열(극작가·연출가) 극단 성 대표가 바라본 오주석

'김홍도의 삶과 예술' 토크쇼 진행 제안

방화수류정 정취에 따뜻한 인간미 빠져

오주석(1956~2005)은 수원시 남창초등학교,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 동양사학과와 동 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더코리아 헤럴드 문화부 기자, 호암미술관 학예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간송미술관 연구위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겸임교수 재직 중 2003년 10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5년 2월 5일 오후 9시 28분에 서울 여의도 성모 병원에서 타계했다.

저서로는 △단원 김홍도-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 화가(역화당, 1998)(술, 2006)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1(술, 1999)(술, 2005)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2(술, 1999)(술, 2006)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술, 2003)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오주석 선생 유고간행위원회 편(신구문화사, 2006) △그림 속을 거닐다: 오주석의 독화수필, 오주석 선생 유고 간행위원회 편(술, 2008)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월간미술, 2009) 등이 있다.

"너무나도 신군부에 힘들어 했던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수원의 밤은 깊어만 갔다."

수원이 고향이 아니면서 필자는 1978년부터 연극을 한다고 수원을 이리저리 뒀 때였다.

물론 수원의 그 당시 연극은 새마을연극과 서울농대 연극반 출신들의 공연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막이 올라갈 정도였다.

그래서 수원을 만만히 보아 정착하기로 하였고 2012년 지금까지 연극에만 매달려 있다.

당시 수원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오주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전공은 다르지만 무대를 사랑하고 군대 가기 전에 배우를 한 적도 있다는 것이었다. 나이도 비슷한 처지라 잠자리와 술자리 신세를 많이 졌다. 너무도 힘든 시기였기에 달 밝은 밤 만석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그가 나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보다 먼저 저세상에 갔을 것이다.

너무나도 신군부에 힘들어 했던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수원의 밤은 깊어만 갔다.

연극을 하자니 제작비가 없었고 술만 먹자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런데 제안을 해왔다.

클래식 공부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연극하는데 필시 도움이 될 거라고 무거운 음성으로 나를 밀었다. 결국 수원에 유일무이한 클래식 감상식(한가람)에 부탁하여 작은 몸을 의탁하기로 했다. 전혀 모르는 세계와의 만남이었다. 날마다 오주석이란 친구가 오길 기다렸다.

클래식 음악 해설과 감상법을 배우기 위해서다. 막걸리 몇 병과 안주를 준비한 채 말이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머리에 속속 들어오게 설명을 해대니 필기하기에도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 곁을 떠났다. 더 이상 벗은 옆에 있질 않았다. 두 사람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연극과 미술사 그리고는 만나지 못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갔다.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1992년 12월 사무엘베게트(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을 하게 되었다. 오주석이 구경을 온다는 것이다. 배우로 출연한 나는 벅에게 이만큼 성장했노라 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다. 공연이 끝나고 쯔파티 자리에서 연출형님께서 작품을 비평해보라고 하니 묵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성열이 극을 다 끌어가고 연출이 안보였다고 아무 주저 없이 얘기를 풀어나가 버렸다. 그리곤 뚝,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떠났다.

그러고는 세월이 또 똑딱 흘렀다. 2000년도에 연락이 되어서 만났다.

단원 김홍도 얘기가 나왔다. 그때 필자는 정조대왕에 미쳐 있을 때였다.

단원 김홍도를 연극으로 만들어보라고 얘기하며 책까지 주었다.

옛 그림을 알 턱이 없는 나에게 옛 그림에 대해 청산유수로 갈파하던 밤들이 늘어났다.

그러다가 얼굴이 불거지면 명태라는 가곡을 시원하게 불러댔다.

우린 꿈을 꾸었다. 화성 성벽에다 영화를 틀자. 그리고 김홍도의 삶과 예술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결정을 내려 버렸다. 2000년 여름밤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일환으로 영상·학술세미나의 대화, 화서문 성벽은 정조시대를 무대로 영사기가 돌아갔다.

박종원 감독을 만나 허락받기까지 우리는 꽤나 고심했다. 그는 나와는 판이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당위성에 초점을 맞춰 차분하게 설득해 나갔다.

박종원 감독(현 한예중 총장)은 흔쾌히 승낙을 했다.
연극제 구경 오는 관객보다 더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학교 문제로 서울로 이사간다고 하였다.
그날도 방화수류정은 아름다운 조선의 정취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고 우리는 달빛과 벚의 따듯한 인간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해 10월 청소년을 위한 오주석의 해설이 있는 우리 그림 강좌를 수원 소재 고등학교 순회로 하자는 제안을 해버렸다. 머뭇거리지 않고 공감했다. 지금 필자는 그때 당시 신문에 난 네모난 흑백 사진과 별세 소식을 꺼내 책상머리에 놓고 이 글을 쓰고 있다.
한번도 아프단 소리를 하지 않았던 그다. 속이 넓고 깊은 인간이다.
1주기 때는 내 손으로 추모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 까지도 못했다.
계속 집으로 남아있는 필자는 이제 부끄러움과 속죄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드디어 시작하려고 한다. 그것이 오주석에 대한 되지 못한 연민의 정일지라도 말이다.

유고간행위 출간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탐독하면서 가슴이 쿵쿵거림 억제 못해

이제 그가 품었던 뜻을 되새기며 못 다한 학문적 성취를 이어 나가는데 이 책이 적으나마 기여함이 있길 바란다는 오주석 선생 유고간행위원회가 출간한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를 탐독하면서 가슴이 쿵쿵거림을 억제할 수 없다.
유봉학 교수는 "미술 사학자로서 첫 번째 연극 논문이며 애착도 많고 아쉬움도 많이 가진 논문으로서 유교 경전, 특히 '주역' 연구에 매달렸고 조선 선비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필요로 한 작품이다"고 설명했다.
연구의 완성을 늘 의식하며 그의 머릿속에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수정을 거듭하고 있었다고 얘기한다. 이인문과 김홍도는 동갑내기 화원이자 친구로서 서로 인간적인 교류도 풍부했지만 작품 소재나 화풍은 매우 달랐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인문을 다룬 전공 논문은 거의 없다. 조선 후기 최대의 걸작이며 세계 화화사에 빛나는 일류 유산이라고 역설한다. 필자가 놀란 것은 회화를 태극도설 철학과 연계시켜 해석한 것이 파격적으로 다가왔다. 오주석은 옛 그림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그것은 학문의 대상이기 전에 녀를 놓고 바라보게 하는 예술품이다. 옛 그림을 학문적으로 대할 때에는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인간의 혼이 담긴 살아있는 존재로 대할 때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기쁨지게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의미를 고양시킨다고 하였다. 우리의 옛 그림을 감상하는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옛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옛 사람의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즉, 산수화를 즐기는 사람은 삶속에서도 자연을 찾고 꽃그림을 즐기는 사람은 삶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게 마련이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생태까지도 마음깊이 이해하는 참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옛 분들의 마음자리는 드넓고 여유로웠다. 그래서 푸른 산이 그림이 되었고 맑은 물은 저 홀로 거문고를 튕겼다.
무릇 그림이란 마음 가는 바를 따르는 것이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이건 참된 생각이건 혹은 알뜰한 사랑이건 간에 세상에서 진정으로 훌륭한 것은 모두 선하고 결 고운 마음이 빚어내는 것이라 믿으므로….

강우방 선생은 우리가 지나쳤던 것, 모르고 있었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풀어내면서 오주석은 그림에 그려진 나무와 인물과 하나가 되고자 했으며 마침내 화가와 하나 되어 그와 놀면서 흥에 겨워했다.
그는 그 시대에 살고자 했다. 동양 고전을 섭렵했으며 시문을 두루 읽고 문인들의 문집에서 귀중한 실마리를 취하고 무엇보다 조선인의 마음자리를 찾으려 했다. 거문고를 배워 김홍도와 함께 소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시며 거문고를 탈 속셈이었다. 주역을 10년 넘게 배우고 익혔으며 우리 가락에 심취하여 이인문이 되고자 했다. 조선시대로 되돌아가 그 시대와 예술을 체험화하여 얻은 환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주려 했다. 그는 항상 그림 앞에서 꼼짝 않고 하염없이 뚫어지게 그림 구석구석을 살피곤 했다. 그의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아! 슬프다. 조선의 그림이 이제 비로소 그 독자적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일본의 학계에도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누가 그 뒤를 이을 것인가.

그는 모든 조선 그림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다. 늘 중국의 그늘에서 제 모습을 보지 못했던 조선 그림의 세계를 뒤에 오는 그 누군가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펼쳐나가기를 마음깊이 바랄 뿐이다. 역사는 아웃사이더가 엮어나가는 것이다.
오주석은 스스로 말하기를 역사학도로 시작했고 사료는 물론 그림을 통해 시대를 읽었다.
시와 화가 둘이 아니듯 사료와 작품은 표리이자 동전의 양면임을 알았다.
우리 그림이 중국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기 위해 열심히 베꼈으며 시화가 둘이 아님을 알기에 붓을 들었다. 문인화가 존재 가능한 것은 전통사회 지식인은 모두 붓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론만이 아닌 실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그림과 운율의 상관을 알기 위해 거문고를 배웠으며 서양 고전음악의 빠저 클래식기타를 쳤고 연극배우로 직접 무대에 섰다.
우리 전통음악에 애정을 가지고 전통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과 만나고 공연장을 수없이 찾았다. 김홍도의 풍속화 '무동'에 등장한 악사가 악기 연주에 어느 정도 몰두했으며 신명의 정도가 어떠한지 읽어낼 수 있었다. 물론 성리학과 역학에도 몰두했다.
한국의 미 특강이란 책에서 오주석은 옛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조상들이 일으켜낸 문화와 예술이 참으로 훌륭하고 격조 높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술은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만도 아닙니다. 온몸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깊이 감동받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옛 그림은 땅속에서 어느 날 출토되는 도자기와는 달리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재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에서 사람으로 따라서 뭔가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김홍도 연구에 새로운 자료로는 단원의 사망 시기를 1806년으로 추정했고 수원 용주사에 있는 2점의 불화(삼새여래체탱, 칠성여래사방칠성탱)를 김홍도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씨름' '무동'에서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세부손가락 표현에서 실수를 잡아내기도 했으며 연극적 글쓰기로 드라마틱하게 풀어 나갔다. '송하맹호도'는 일본식 표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이 오주석 연구를 통해 김홍도는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는 풍속화가 혹은 어진화가라는 단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회화의 모든 분야에서 한 시대를 리드했던 대가(大家)로 제대로 인식시켰고 예술뿐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랑을 갖게 됐다.
또 문학, 음악, 연극, 전통무용, 전통악기, 동양고전에 심취했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에 애정이 남달랐으며 김홍도의 인간성, 예술의 아름다움 등에 대한 다양하고 소중한 콘텐츠를 누구보다 설득력 있고 재미있게 전달된 점이 연구 업적으로 기억 될 것이다.

정감어린 시선, 순수한 마음, 담백한 성격 오주석기념관 만들어야 할 책무 우리에게

오주석, 그는 예술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 특히 소중한 사람과의 소중한 인연을 중시했었다. 해서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들을 선사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정감 어린 시선, 순수하고 착한 마음, 정직하고 담백한 성격을 지닌 그였다. 아마 단원 김홍도도 그러했으리라 믿는다.
수원시, 경기도는 나서야 한다. 특히 수원은 오주석이 생존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서도 이사 가기를 싫어했던 수원의 집을 오주석기념관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것이 수원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오주석과 수원, 수원과 옛 그림들은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여 수원시, 경기도에 문화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아야만 한다. 가능하다. 오주석은 지금쯤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로 가 있을 것이다. 김홍도, 이인문과 함께 금강산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조대왕이 재촉하는 것만 같아. 누구보다 정조대왕은 김홍도를 잘 알고 있었다. 오주석은 궁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정조대왕과 매화주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오주석이 발견한 김홍도의 자작시 평시조를 긴 호흡으로 오주석은 부를 것이다.
그가 가장 사랑한 김홍도의 그림 '주상관매도'와 하나가 되어서 별떡 일어나 있을 것이다.

"봄물에 배를 띄워 가는대로 놓았으니
꿈 아래 하늘이요, 하늘 위가 물이로다
이중에 늙은 눈에 보이는 꽃은 안개속인가 하노라"

여백이 보이지 않습니까?

관람 후기

삼일, 삼일이여(관람후기)

광고IT기자단 기자 노중태

〈삼일, 삼일이여!〉는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음악극이다. 선생은 오직 나라를 찾으려는 일념 하나로 구한말 독립협회, 상동청년학원, 신민회 등을 찾아 애국지사와 교류하면서 공부하였다. 실천운동가로서 삼일학교를 설립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학교에 희사하고, 가족과 함께 만주 망명길에 올랐다. 1910년 일제에 조선이 강점되자 먼저 나온 이희영 등과 같이 만주에서 신흥중학교를 설립하였다. 군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결사대로 맹렬한 독립운동을 펼치다 3년간의 추방령과 더불어 평양감옥에 압송되었다. 고문으로 전신이 마비된 후에야 석방되어 고향 수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거처할 방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1923년 삼일학교 아담스기념관 건축에 감독으로 참여했다. 삼일학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었다. 그러나 고문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1930년 11월 29일 56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우리가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필동 임면수선생의 부인 전현석(全賢錫) 여사의 역할과 존재 가치다. 좁쌀 강냉이 풀 나무 죽으로 연명하며 영하 40도 한파로 얼어붙은 만주 벌판을 누비다 무시로 찾아드는 별동대 특파대의 식사로 하루 다서 여섯 차례씩 밥을 지었다. 부인의 인내력과 온순한 마음씨와 예절에는 누구나 머리를 숙였고 독립의 어머니로 정평이 높았다. 그 당시 독립운동가로 선생 댁에 잠을 안잔 이가 별로 없고, 부인이 손수 지은 밥을 안 먹은 이가 없어 실로 선생 댁은 독립운동가의 휴식처요, 무기 보관소요, 회의실이요, 참모실이며, 정비실이었다.

극중 부인의 역할은 독립운동 당시의 그 장면과 똑같았으리라. 장남 우상이 스물의 나이로 군자금을 구해 만주로 돌아오다 만주 벌판에서 얼어 죽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돌봐야할 국가와 민족이 있음을 잊지 않았다. 객주집도 일제의 참빛작전에 불타 사라졌으리라. 극중 그의 역할은 많지 않았으나 무게감이 만만치 않았다. 그의 존재감은 시종일관 독립운동으로 다져진 정신적 육체적 지주였다.

뮤지컬 〈삼일, 삼일이여!〉는 극단 '성' 대표 김성열 감독의 창작물이다. 8월 15일, 16일 3회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김성열 감독은 나혜석, 정조대왕, 정약용 등 수원의 인물을 뮤지컬로 창작하여 무대에 올린 바 있다. 2014년에는 노숙인들을 연극 무대에 세우기도 했다. 특히, 임면수 선생이 독립운동가로 인증받기까지 애써 온 분이다. 삼십여 년 동안 오직 연극을 위해 살아 왔고, 그 활동무대가 오롯이 수원이었다. '수원 사랑' 이 차고 넘치는 분이다. 작곡자 정유진의 노래도 아름다웠다.

내용이 풍부하고 연출력이 뛰어나 여느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진지했다. 97권의 책을 읽고, 1년 여 만에 완성했다는 시나리오라고 한다. 임면수선생의 손자인 임병무로부터 귀 따갑게 들어온 이야기가 음악극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백년의 침묵을 깨고 빗장을 여는 시나리오다. 다만, 음악극이라면 노래가 더 많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창과 합창 부문의 음량이 풍부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한편, 시니어와 노숙인 등 아마추어 그룹과 함께 한 무대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재정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 열정을 다해 준비한 무대였을 것이다. 연습기간이 한 여름이어서 땀도 많이 흘렸을 것이다.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역사의 기로에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게 해준 무대였다. 그래서일까.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학생도, 시민도.

필자는 춘향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뮤지컬을 보았다. 세 번째 뮤지컬 관람도 곧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통일을 꿈꾸며 조국과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에게 가치 있는 유산을 남기려 합니다 새로운 100년에도 퇴색되지 않는 평생을 올곧게 살아 가신 선생의 숭고한 뜻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높이 세우려 합니다." 연극인들의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 **창작 뮤지컬 빨간 염소들의 거리**

엄창석은 1961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영남대 독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주물공장의 노동자 문제를 다룬 중편소설 「화살과 구도」가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소설집 『슬픈 열대』, 『황금색 발톱』, 장편 소설 『태를 기른 형제들』, 『어린 연금술사』, 『유혹의 형식』 등이 있다.

금북문화상,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성열은 1954년 강원도 속초출생으로 동국 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석사다.

1983년 극단 城 창단하고 1996년 수원 城 국제연극제 창설했다. 1997년 충현 박문수 예술대상 수상하고, 1998년 경기 예술대상 수상, 2001년 경기도 문화상 공연 예술부문 수상, 2002년 경기도 문학상 수상(희곡, 나는 포이로소이다), 2003년 보훈문화상 문화예술부문 을 수상한 현 극단 城대표이자 작가 겸 연출가다.연출작으로는 〈햄릿〉, 〈맥베드〉, 〈안티고네〉, 〈로미오와 줄리엣〉, 〈카덴자〉, 〈한씨연대기〉, 〈무엇이 뭉고하니〉, 〈태백산맥〉 〈정조대왕〉 외 다수 작품을 연출했다.

〈빨간 염소들의 거리〉의 '빨간' 은 사춘기의 젊은 생기를 상징하고 '염소' 는 가축이지만 제도권 속에 있는 아이들을 의미한다. 10대 중반의 기쁨과 희열, 고독과 절망을 그려냈다. 경상북도 대구신천 변을 중심으로, 학교라는 고삐에 묶인 채 각자의 방식으로 일탈을 꿈꾸는 소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주인공은 중학생 시절 대구 열차전복사고를 당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헤맬 때, 학교 측의 배려로 병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주인공은 시험지를 찢고 입에 넣어버린다. 낙제를 시킬 테면 시키라는 일종의 포기 심리의 발동에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생사기रो에서까지 시험을 치른 영웅으로 대접한다. 그러한 조치에 주인공은 오히려 환멸을 느낀다.

주인공은 미술부에 들어가 아그리파, 줄리앙, 세네카, 미켈란젤로 등 석고상 인물 하나하나의 내력을 들으며 그림에 심취하게 된다. 주인공은 밤이 늦도록 미술실에 남아 그림그리기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유도부 학생들과 다툼을 벌이게 되고 폭행을 당한다.

학생들 중 운동권에서 활동을 하다가 죽은 선배가 있어 추모행사에 주인공과 학우들이 참석하지만, 추모행사보다는 인근 바닷가에

수영을 즐기는 모습에 주인공은 착잡한 심정이 된다. 그러면서 더욱 그림그리기에 전념한다.

불량학생 패거리가 찾아와 주인공과 동료들에게 패싸움을 걸지만, 동료들은 맞서지 않고 잠자코 얻어맞는다. 주인공이 참다못해 복수를 해주겠다고 불량학생 패거리에게 대들다가 실컷 얻어맞는다.

그림그리기에 몰두하는 주인공, 계절이 한 겨울이기에 주인공은 의자를 난로에 넣고 불을 태워 온기를 유지한다. 이 광경을 교사가 보고, 학교기물손괴를 이유로 주인공은 퇴학을 당하게 된다.

바닷가에서 동료들과 만나는 주인공, 동료는 예쁜 여학생과 사귀며 즐거운 표정이다. 그중

학창생활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 또한 자신의 길을 선택해 주인공과 헤어져 떠나버린다. 주인공은 그들 모두를 떠나보내며 10대시절과 작별을 고하는 장면에서 연극은 끝이 난다.

〈빨간 염소들의 거리〉는 어른이 된 소설가 엄창석이 소년소녀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자 소설가 엄창석이 세상에 내보내는, 소년에서 성년으로 가던 상처투성이 길에 대한 오래된 성찰에서의 소산이다.

무대는 Y자 형의 긴 마루를 가로 쓰러뜨려놓아, 일종의 선착장 같은 풍경으로 조성되었다. 배경에 영상으로 대구열차참사, 바닷가 풍경, 파도 속을 운항하는 선박, 커다란 화폭 등의 영상을 투사하고, 수많은 이젤과 석고상을 배치해 학교 미술실 분위기를 창출해 내고, 여배우들이 소년시절의 학생 역으로 출연해 호연과 열연, 그리고 열창을 해 갈채를 받고, 무대구성과 장면변화 동선처리 등에서 탁월한 연출력이 감지되는 공연이다.

김지수, 고아라, 김설빈, 김예림, 이 훈, 박해선, 임민아, 정혜은, 이빛나, 정단비, 최선은, 김준송, 안주현, 박지원, 이은지 등 출연자 전원의 열정과 기량이 제대로 무대 위에 구현되어 관객의 우레와 같은 갈채를 받는다.

정유진 작곡, 민병관 영상감독, 전스연 안무, 김봉령 조명, 이선주 무대 등 스태프 모두의 기량이 제대로 드러나, 극단 城의 엄창석 작, 김상열 연출의 창작 뮤지컬 〈빨간 염소들의 거리〉를 우수 결작 창작 뮤지컬로 탄생시켰다.

10월 31일 박정기(朴精機)

— **열여섯 살의 선택**

〈빨간 염소들의 거리〉- 뮤지컬을 보고

이근자(소설가)

나는 원작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다. 특히 철학적 질문과 사유의 깊이가 아득한 곳에서는 그것의 결을 음미하느라 머뭇머뭇 서성였다. 그래서였을까. 뮤지컬에 거는 기대가 자못 컸다.

뮤지컬은 시작되자마자 활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1, 2, 3……. 중학생들이 학급의 성적순으로 구호를 붙이며 힘차고 씩씩하게 등장한 것이다. 열차사고로 다쳐 입원한 주인공 형주의 병상과 교실 풍경을 이중으로 연출하다니! 담임은 반의 평균 점수를 높이기 위해 공부 잘하는 형주더러 병실에서 시험을 치게 했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엉거주춤 앉은 형주와 달리 학교 교실에서는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느린 병원과 치열한 교실. 두 상반된 상황을 한 공간에서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눈과 귀가 무대로 바짝 다가갔다.

뮤지컬 〈빨간 염소들의 거리〉는 네 개의 줄기로 이야기를 펼친다. 하나는 서이령이라는 여학생과 함께 다니는 교회에서 만난 성인인 곤씨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리' 에 대한 질문이다. 진리란 하나인가, 선과 악은 발목만 돌리면 되는 간단한 일일 뿐이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등과 같은.

두 번째는 친구 도희와 서이령 패들과 물려다니는 우정과 풋사랑 얘기다. 특별한 미술부원 진기섭이 보여주는 뮤즈의 세계는 어떠한가. 수많은 노랑을 발견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 진기섭의 회열과 고뇌가 가슴을 친다. 마지막은 원작에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우흠의 행보를 따라가는 이야기이다. 어쩌다 폭력배의 무리에 휘말리게 되지만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흠은 세네카가 얘기한 '용기' 와 '용맹' 의 철학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바다로 떠난다. 로마시대의 세네카가 현재의 우흠에게 벳사람의 길을 알려준 것이다.

이번 뮤지컬의 특이한 점은 3차원의 공간과 영상의 통합을 들 수 있다. 무대 벽을 스크린 삼아 기차길과 바다를 보여줌으로 장면의 무한 확장이 가능했다.

또한 삶과 죽음이 대칭한 한 면이라고 절규한 '데칼코마니' 와 염소 떼들이 우글거리며 거리를 누비듯 출연진 전부가 무대를 휘저으며 부르던 마지막 장면의 군무와 노랫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다.

우린 열여섯에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인생 전체를 결정짓지는 않았는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것이다. 찬란한 가을, 대구에서 수원까지 단풍주의(丹楓注意) 구간을 지나 빨간 염소들의 거리를 훑쳐본 것이 참 잘한 일이었구나, 그것도 뮤지컬 무대에서.

이근자(010. 6780. 7404)

경북 안동 출생. 2011년 《경남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바닷가에 고양이 의자가 있었다」 당선으로 등단. 「여섯 번째 직녀」, 「선사기 정원」, 「옥시모론의 시계」 등 발표, 대구문인협회 회원.

_HISTORY

1983년

창단공연 참새와 기관차(윤조병 작)
정복되지 않는 여자(S-모음 작)
우리들의 저승(김광림 작)
화홍소극장 개관

1984년

돼지들의 산책(김용락 작)
워크샵/파수꾼(이강백 작)

1985년

조센삐(이창현 작)
보수작업(이창현 작)

1986년

불모지(차범석 작)
우리는 친구(유홍식 작) - 어린이인형극
오디디푸스왕(소포클레스 작)
신평동 소극장 개관

1987년

보수작업(이창현 작)
멀고긴 터널(이제현 작)
카덴자(이현화 작)
워크샵/산국(황석영 원작)
어디서 다시 만나랴(김광림)
사랑게임(안토니 쉐퍼)
꿈먹고 물 마시고(이근삼 작)

1988년

한만선(오태석 작)
금관의 예수(김지하 작)
티타임의 정사(헤롤드핀터 작)
팽(박재서 작)
칠수와 만수(오중우 작)
무엇이 필요하니(박우춘 작)

1989년

금희의 오월(광주토박이 작)
태백산맥(조정래 원작)
워크샵/개뿔(이강백 작)
시민K(이윤택 작)
손오공 - 어린이 연극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원작)
복수동 소극장 개관

1990년

한씨연대기(황석영 원작)
칠수와 만수(오중우 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황지우 원작)
장타령(김민흠 작)
죽음 그리고 굿(김성열 작)

1991년

달라진 저승(김광림 작)
백설공주 - 어린이 연극
햄릿(셰익스피어 작)
아이고, 아이고 랩소디(김성열 작)
한씨연대기(황석영 원작)

1992년

오구-죽음의 형식(이윤택 작)
프쉬케 그대의 거울(김정일 작)
위기의 여자(시몬느 보바르)
고도를 기다리며(사무엘 베케트 작)

1993년

보수작업(이창현 작)
워크샵/동행(공동창작)
10주년 기념공연/맥베드(셰익스피어 작)
시시비비(김성열 작)

1994년

길 떠나는 가족(김의경 작)
떨어지는 별(김성열 작)
저별이 위험하다(김광림 작) - 청소년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오영진 작)

1995년

목이 긴 두사람의 대화(박조열 작)
무지개는 반원이었습니다(김정일 작) - 청소년 연극
사랑을 찾아서(김광림 작)

1996년

해경궁 흥씨(김성열 작)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창설
워크샵/상자속의 여자(김유미 작)

1997년

도라지(김성열 작)
한동록(김성열 작)
동경아시아 연극제
아프면서 크는 나무(윤수천 원작) - 어린이 연극
수원예술상 수상

1998년

꺼지지 않는 불꽃(김성열 작)
정조대왕(김성열 작)
동경아시아 연극제
6학년 4반(임옥순 원작) - 어린이 연극
제 1회 전국 거리극페스티벌 개최

1999년

마당극 두령바위 눈물(김성열 작)
아리 아리 아라리요(김성열 작)
동경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

2000년

한동록(김성열 작) - 이집트 카이로 국제 실험연극제
아리랑(나운규 작) - 청소년 연극
아프면서 크는 나무(윤수천 원작) - 어린이 연극
거울산에는 새가 없다(김성열 작)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김성열 작) - 청소년 연극
경기도문화상 수상-경기도

2001년

爾(김태웅 작)
한동록(김성열 작)
로미오와 줄리엣(셰익스피어 작)
나무하나 별 하나(김성열 작)-청소년 연극
보훈문화상 수상-국가보훈처, 문화일보

2002년

나는 王 이로소이다(김성열 작)
-경기문화재단 창작활성화 당선작
할미꽃(홍사용 작)-거창국제 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수상
검은비, 검은땅, 검은 노래(김성열 작)

2003년

20주년 기념공연/ 세일즈맨의 죽음(아서밀러 작)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중고등학교 순회공연
용건릉 야외극/ 정조대왕(김성열 작)
안티고네(소포클레스 작)

2004년

이동식 교육극/ 정조대왕(김성열작)
뮤지컬 가스펠
워크샵/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루이지 피란델로)
출가(홍사용 작)

2005년

마당극 제암리 만세(김성열 작)
-광복60주년 기념 전국순회공연
뮤지컬 나혜석(김성열 작)
-드림씨어터 소극장 개관
워크샵/ 뱀(장클로드반 이탤리 작)
뮤지컬 가스펠
심청-어린이 연극

2006년

소나무아래 잠들다(한숙희 작)
-신나는예술여행 전국요양원 순회공연
뮤지컬 정조대왕(김성열 작)
아일랜드(아놀드 후가드 작)
곰(안톤체홉 작)

2007년

궁평리 우화(김성열 작)
아.제암리만세(김성열작)
뮤지컬 정조대왕(김성열 작)

2008년

뮤지컬 정조대왕(김성열 작)
뮤지컬 다산정약용(김성열 작)
두더기 시인의 봄이 오면(김우진 작)

2009년

뮤지컬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김성열 작)
-한.일 합동공연
뮤지컬 정조대왕(김성열 작)
뮤지컬 다산정약용(김성열 작)

2010년

무용극 제암리 불꽃(김성열 작)
소나무 아래 잠들다(한숙희 작)
뮤지컬 정조대왕(김성열 작)
장애인극단 <난다> 창단

2011년

뮤지컬 선각자 나혜석(김성열 작)
곰 (안톤체홉 작)
뮤지컬 정조대왕 (김성열 작)
수원시민소극장 개관/수원시민극단 창단
거창 전국실버연극제 대상 수상(화성시 실버무지개극단)

2012년

신의 아그네스(존 필미어 작)
뮤지컬 나혜석(김성열 작)
음악극 천년왕조(김성열 작)
- 경기전문예술 창작발표 1등 수상-극단 <성>

2013년

마당극 제암리불꽃(김성열 작)
30주년 기념공연/ 파리의 그여자(나혜석 작)
리어왕(셰익스피어 작)
경기다문화연극제 대상 수상-다문화극단 <모아>

2014년

노숙인 극단<노자> 창단
청소년 극단<수원> 창단
경희(나혜석 원작)
그러나(홍성원 원작)
경기도 상주단체 지원작
뮤지컬 너 나 아니?(김성열 작)
뮤지컬 성균관유생 이옥(김성열 작)

2015년

수원의 함성!(김성열 작)-수원연극 축제 초청작
수원 실버극단 <청춘극장>창단
-수원연극축제 초청작
-제12회 행복한세상 전국청소년연극제 충남도지사상 수상
-광복70주년 기념공연
음악극 <삼일,삼일이여!>(김성열 작)
경기도 상주단체 지원작
뮤지컬 <빨간염소들의 거리>(엄창석 원작)
뮤지컬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김성열 작)

